

농진청, 코로나19 영향 농식품 구매패턴 변화 분석

신선식품 온라인마켓 이용 고루 구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코로나19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발생시기별로 1차(2월 8일~10일)와 2차(4월 2일~4일)에 걸쳐 농진청 소비자패널 총 98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분석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은 감소하고 일명 '집밥족'이 늘면서 배달 또는 간편 조리식품을 이용하거나 직접 조리해 먹는 등...

외식횟수를 줄였다는 소비자는 2차 조사 때 82.5%로 코로나19 초기인 1차 조사 때보다 7.7% 증가했다...

배달음식 주문 횟수를 줄인 가구는 2차 조사 때 47.3%로, 주문을 늘린 가

집밥족 늘어남에 따라 배달·간편 조리식품 이용하는 등 형편 따라 다양한 식사형태 보여

구 25.2%보다 많았다.

대신 농식품을 구입해 직접 조리해 먹는다는 가정이 83%를 차지했고, 반조리(12.4%)나 완전조리(4.6%) 식품을 구매한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슈퍼마켓·편의점 등 대면 접촉이 없거나 적은 곳에서의 농식품 구매가 늘었다.

신선·가공식품을 모두 온라인과 슈퍼마켓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신선 7.9%p, 가공 7.4%p)한 반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의 구입은 감소(신선 5.9%p, 가공 6.5%p)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식품 구매과정에서 대인 접

촉으로 인한 감염을 걱정하거나 오염된 농식품을 통한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9.4%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선 농산물의 구입을 늘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3.6%로, 구입을 줄였다는 경우(20.5%)보다 13.1%p 많았다.

주요 계란(29.5%p), 곡류(24.1%p), 육류(22.0%p), 채소류(21.1%p), 과일류(13.4%p) 순으로 구입이 늘었다. 또한 가공식품도 구입을 늘린 경우가 39.3%로 줄인 경우(17.1%)보다 22.2%p 많았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자가 33.5%로, 낮아졌다는 응답(4.6%)보다 7.3배나 많았다.

구입의향이 높은 품목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었다.

신선 농산물 중 3일 이상 저장 가능한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

(44.6%)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채소와 과일은 외식과 급식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체로 평년 수준의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개학 연기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대체 수요처를 찾지 못해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외식수요가 줄어들면서 국산과일은 배와 멜론, 수입과일은 파인애플, 레몬, 자몽이 소비부진을 겪었다.

우수농산품센터는 농산품업과 같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마켓과 같은 비대면 경로를 이용한 농식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식품의 고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품목별 다양한 조리법을 소개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춰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채널을 다양화해 촘촘한 소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1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방안 마련

전북도-경진원, 전북 사회적경제 실무위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21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북도 사회적경제 민·관 협의체는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해 사회적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요자 중심의 의제 발굴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결성됐다.

민·관 협의체는 사회적경제 위원회,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위원회는 전북도 정부부처와 민간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를 지원하고 분과의 통

합 및 조정을 위한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및 의견수렴을 위한 5개 분과 위원회(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소셜벤처)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추진 과제를 통한 신규 사업안내 및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 유통기업 설립을 위한 내용이 논의됐다.

조지훈 경진원장은 "사회적경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모형을 제시해 정책방안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건협, 2019년 '암' 5600여건 발견

갑상선암·유방암·위암 대장암·폐암·자궁경부암 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2019년 한 해 동안 16개 시·도지부 건강검진위원을 통해 5,615건의 암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건협이 발견한 총 5,615건의 암 중 갑상선암이 1,59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유방암 1,123건(20.0%), 위암 940건(16.7%), 대장암 604건(10.8%), 폐암 386건(6.9%), 자궁경부암 349건(6.2%), 기타암 284건(5.1%), 전립선암 174건(3.1%), 간암 161건(2.9%) 순이었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건강검진을 통해 지난해 5,600여명의 암환자를 발견하여 협약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했다"며 "암은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한 만큼 평소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사, 운동, 예방접종 등 건강생활과 함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점검·의료진 격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 방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1일 생활치료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인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했다.

경기국제2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 중 경증 환자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날 24일부터 보건복지부 등 5개 정부기관과 경기도(안산시), 고려대의료원, 국민연금공단 등 총 6명이 합동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환자 입·퇴소 지

선병원 의료진의 진료 사례를 보고받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중 무(無) 증상자를 14일간 격리하기 위한 김포 임시생활시설 운영도 총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중인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리조트를 대구지역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3.8~3.29)로 제공했다.

또한 지난 8일부터는 외국인 무증상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경증 확진환자 총 300여 명의 회복을 돕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평균 저수율 97.6% 정읍 농어촌공, 영농 급수 안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김경진)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안전영농을 위한 모든 급수준비를 완료했다.

정읍지사는 지난 20일 기준, 관내 평균저수율이 97.6% 수준으로 평년대비 124.5%를 넘고있어 올해 영농급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경진 지사장은 "코로나19의 예방차원에서 안전영농을 위한 통수식은 생략하지만, 그로 인해 절감된 시간과 비용으로 대민 서비스를 강화하여 정읍내 모든 지역민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사는 오는 4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난안전 상황실을 설치, 연중 상시 운영해 영농기 급배수 관리와 재난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극복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

기업·소상공인은 21일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0.75%포인트(pp) 대출금리를 자동 감면하고,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에 따라 기업은행 영업점장의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

지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수출유망 지정사업 신청하세요'

연 수출실적 500만불 미만 중기 대상... 전북중기청, 내달 8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의 수출실적이 5백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각종 정책적 연계지원을 통한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총 1천 개 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대상기업이 55개사로 전국 대비 2.6%에 불과하다.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수출실적이 5백만불 미만의 수출기업이며, 내수기업 및 채무불이행기업, 국제·지방체 체납기업 및 특정 서비스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수출유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각종

수출지원사업과 정책금융·보증, 금리·환거래 등 각종 사업에 우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통상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韓 대표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선도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 신규 프로젝트 제안

인공지능(AI) 기술 국제표준화회의에 참가한 우리나라 대표단이 인공지능 데이터, 데이터 품질, 신뢰성 및 산업 활용 등 전 영역에서 기술 논의를 선도하며, 이 분야 국제표준화 주도국 진입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5차 인공지능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42)'에 산·학·연·관 전문가 33명이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우리나라가 주도해 신설된 인공지능 데이터 특장작업반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기구의 데이터 표준화 작업범위를 빅데이터 표준화에서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로 확대해 표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10월 차

회의까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인공지능 선도국들과 기존의 빅데이터 표준안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표준으로 확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표준안 도출을 위한 신규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생태계 표준화를 추진할 자문작업반(Advisory Group) 신설도 제안해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걸쳐 국제표준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었다.

우선 한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에서 머신러닝용 데이터 품질 기술을 신규 프로젝트(New Project)로 제안(ETRI 하수욱 책임)했다.

데이터 품질은 수집·가공·유통 전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정한 절차와 형식 등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제고하는 핵심요소이다. /뉴시스